*5 월 10 일(금)은 65 세 이상 입장 무료

*5 월 15 일(수)은 '국제박물관의 날(5/18)'을 기념하여 입장 무료

기획전　이토 준지전(展)　유혹

JUNJI ITO EXHIBITION: ENCHANTMENT

2024 년 4 월 27 일[토]~9 월 1 일[일]

※혼잡 시 입장 제한 있음

아름다우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세계를 그려내는 만화가 이토 준지.

독창성 넘치는 작품은 일본 국내외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전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본 전람회는 이토 준지의 첫 대규모 개인전으로, 자필 원화와 일러스트, 회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데뷔 작품 "토미에"를 비롯하여 "소용돌이", "사자의 상사병", "소이치" 등 시리즈 만화 외 "목매는 기구" 등 단편 작품의 자필 원화와 더불어 본 전람회를 위해 그린 신작도 공개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기피감을 솜씨 좋게 작품으로 표현하면서도 일상과 비일상, 호러와 유머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이토의 작품 세계를 통해 "오싹해지는"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람료】

일반 1,000(800)엔/65 세 이상·대학생·고등학생 600(480)엔/초·중학생 300(240)엔/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500(400)엔(단, 대학생 이하는 무료)

※( ) 안은 단체 할인과 '세타가야 아트 카드' 할인 요금

※혼잡 상황에 따라 입장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람회 티켓

온라인 티켓 및 당일권을 판매합니다.

*온라인 티켓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타가야　문학관 홈페이지(https://www.setabun.or.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세타가야 문학관　전기 컬렉션전

파리 선물　고보리 안누의 유채화 ~유럽 체류 당시 작품을 중심으로~

2024 년 4 월 20 일(토)~9 월 1 일(일)

동시 개최: MUTTONI 컬렉션

※혼잡 시 입장 제한 있음

모리 오가이의 차녀로 태어나, "말년의 아버지"(1936), "적갈색의 쇼룸"(1971) 등으로 유명한 고보리 안누(수필가 1909~1998 년)는 유소년기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화가인 나가하라 고타로와 후지시마 다케지 밑에서 유채를 공부했습니다. 1932 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파리의 랑송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으며, 귀국 후에는 후지시마의 제자 화가 고보리 시로와 결혼합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안누의 화가 경력은 중단되었지만, 그 작품은 세타가야구 우메가오카의 옛 자택에 오랫동안 보관되었습니다.
본 전람회에서는 유족에게서 기증받은 안누의 젊은 시절 유채 작품과 함께 모리 오가이 가족 자료(파리에서 어머니와 언니에게 보낸 편지 등)를 통해 고보리 안누의 생생한 미술학도 생활과 가족의 깊은 유대를 소개합니다.



고보리 안누《거리 풍경(공원의 아이들)》1933 년경　세타가야 문학관 소장

【관람료】

일반 200(160)엔/대학생·고등학생 150(120)엔/ 65 세 이상, 초·중학생 100(80)엔/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500(400)엔(단, 대학생 이하는 무료)
※( ) 안은 단체 할인과 '세타가야 아트 카드' 할인 요금
※세타가야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중학생은 토, 일, 공휴일 컬렉션전 무료
※혼잡 상황에 따라 입장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개관시간】

10:00~18:00(입장은 17:30 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평일)

관내정비기간 및 연말연시(12 월 29 일~1 월 3 일)

공익재단법인 세타가야문화재단
세타가야　문학관　SETAGAYA LITERARY MUSEUM
우편번호 152-0062 도쿄도 세타가야구 미나미카라스야마 1-10-10
Tel. 03-5374-9111　https://www.setabun.or.jp/